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1강 | 해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지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 나요?

이번 지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돼.

1.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2.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과 어조, 그 특징에 관해 묻는 문제
3.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에 관해 묻는 문제



시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몇 가지 주요 시어의 의미를 알려줄게. 까먹지 말고 잘 정리해두렴.

우선, '해'는 **광과 평화**를 상징한다. 해방 직후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던 좌우의 이념 대립을 잠재울 **민족의 화합과 공존**을 의미하지.

'어둠'은 **암담한 절망적 현실**로, 이 시가 광복 이전에 쓰여 졌다고 본다면 **일제강점기**를, 광복 직후의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혼란스러운 좌우 대립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달밤'과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뜰'도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

'사슴'은 약자, '침범'은 강자라고 이해하면 돼.

'청산'과 '엷되고 고운 날'은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이상 세계**라고 할 수 있지.



선생님이 알려주신 의미대로 해석하니 작품의 주제가 파악이 되었어요.

주제뿐만 아니라 시에 사용된 표현법과 어조도 정리해야 한단다.

'~아라.'라는 **명령형 어조**와 강렬한 **남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 비슷한 **통사구조와 어휘를 반복**하고 있어. 또한 4음보의 빠른 리듬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단다. 음성상징어의 사용도 빼먹지 말고 정리해 두거라.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1강 | 해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 [**해**(긍정적 의미의 시어. 희망, 평화, 광명 등을 의미함. 다른 작품에서 '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를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야]([]: 돈호법) **솟아라**.(명령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현함.) **해야 솟아라**. 말갈게 **씻은 얼굴**(의인법)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의태어) **옛된 얼굴**(순수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 대구법, 반복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1연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대구법, 반복법이 사용됨. **표현상 특징, 운율 형성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달밤**(부정적 의미의 시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의미함. 밝음의 이미지인 '해'와 어둠의 이미지인 '달밤'이 대조됨. 명암의 대비.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이미지 대비와 관련한 내용이 출제되거나 대비되는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와 '아무도 없는 뜰'도 '달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의미의 시어임.)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강조의 표현) 오면, **나**(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남.)는 나는 **청산**(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 좋아라. **훨훨훨**(의태어) **깃을 치는 청산**(활유법)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약자)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별이 바로 드는 곳’을 의미함. 즉 밝음의 세계를 뜻하는 긍정적 의미의 시어임.)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침범(강자)을 따라 침범을 따라 침범을 만나면 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화합과 공존), **워어이 워어이**(의성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옛되고 고운 날**(화합과 공존의 시대. **화합과 공존을 노래한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누려 보리라.

- 「해」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1강 | 해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옛
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
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
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침범을 따라 침범을 따라 침범을 만나면 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
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옛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해」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얻고 있다.
- ③ 명령형 어조로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2. 윗글과 <보기>를 감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해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
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꽃덤불」

- ① 윗글과 <보기>는 의지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였다.
- ③ <보기>의 ‘꽃덤불’과 윗글의 ‘청산’은 비슷한 기능을 한다.
- ④ 윗글은 <보기>에 비해 화합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⑤ <보기>의 ‘태양’은 윗글의 ‘해’에 대응되지만, 더 능동적이다.

3. 윗글의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가장 잘 형상화된 것은?

- 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 들 잊힐 리야
- 「향수」
- ② 그렇게 웃고 나서 /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 놓고 / 가이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 「납작납작」
- ③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④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꽃덤불」
- 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흔들리며 피는 꽃」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에서 고독을 느끼다가 ㉡에서 벗어난다.
- ② 화자는 ㉠과 ㉡에서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이고, ㉡은 미래의 상황이다.
- ④ ㉠에는 소외의 의미가, ㉡에는 연대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 ⑤ ㉠에는 어둠의 이미지가, ㉡에는 밝음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5.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고추밭을 걷어내다가
그늘에서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뜻밖의 수확을 들어올리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신공양을 위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꽃 같기도 했다
그 은밀한 의식을 훑쳐보다가
나는 말라가는 고춧대를 덮어주고 돌아왔다

가을같이 하려고 밭에 다시 가보니
호박은 온데간데 없다
불꽃도 흙 속에 잦아든 지 오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엮드려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한 움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들!
- 「어떤 출토」

- ①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에 등장하는 해는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로 향하게 하는 긍정적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대상과 대비되는 밝음을 상징하는 해로 인하여 세상은 온갖 사물들이 신생(新生)의 빛을 받아 더욱 활기가 넘치는 세계가 된다. 결국 작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활기찬 세상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화합하여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 ① 1연에서는 부정적인 대상인 '어둠'과 대비함으로써 광명한 존재인 '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군.
- ② 2연에서는 '눈물 같은 골짜기'와 '아무도 없는 뜰'이라는 공간을 제시하여 이 둘을 매개하는 '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군.
- ③ 3연에서는 날개 치며 시원스럽게 나는 모양의 의태어인 '훽훽훽'을 활용하여, 햇빛을 받은 '청산'의 활기찬 모습을 표현하고 있군.
- ④ 4, 5연에서는 '사슴과 놀고'와 '침범과 놀고'라는 행위를 제시하여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⑤ 6연에서 '꽃도 새도 짐승도' 함께 '옛되고 고운 날'을 누리자는 것에서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를 엿볼 수 있군.

【7~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갈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옛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
 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훽훽훽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침범을 따라 침범을 따라 침범을 만나면 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
 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옛되고 고운 날을
 누리 보리라.

- 「해」

7. <보기>는 윗글의 주요한 표현상 특징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반복과 열거를 사용하고 있다.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① 시적 어조를 전환하고 있다.
- ② 걱정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일정한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중요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시적 상황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8. 윗글과 <보기>의 A와 B를 연관 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A)양의 텍스트와 (B)음의 텍스트가 교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양과 음의 텍스트는 시어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다. 첫째, 양과 음의 텍스트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다. 즉, 밝음에 대한 찬미와 어둠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다. 둘째, 양의 텍스트는 자연과 관념의 축이 되고 음의 텍스트는 현실과 사회적 상황의 축이 된다. 셋째, 양의 텍스트는 주로 가정적 상황이나 명령형을 통해 나타나고 음의 텍스트는 단정적 표현이나 평서형을 통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① '해'는 '솟아라.'라는 명령형으로 서술되고 있으

므로 A에 해당되겠군.

- ② ‘해’는 ‘말갈게 씻은’ 밝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A에 해당되겠군.
- ③ ‘해’는 ‘청산’에 ‘홀로’ 놓인 현실의 상황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A에 해당되겠군.
- ④ ‘달밤’은 ‘싫어’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B에 해당되겠군.
- ⑤ ‘달밤’은 ‘싫어’하는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B에 해당되겠군.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공간적 개념을 결합시켜 특정 행위에 대한 요청을 강화하고 있다.
- ② ㉡: 공간의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가 처한 고독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구체적 대상을 지정하여 그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 관념적 시간을 미화하여 가정적 미래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10. 윗글에 활용된 표현 기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휘와 구절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음과 비음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여운을 주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청유형 어미와 호격 조사, 종결 어미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장중함과 생동감, 열정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aaba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동시에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화자는 어둠을 거부하고 이를 몰아낼 수 있는 ‘해’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해’의 유무에 따라 공간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해’가 솟은 후의 공간을 이상적으로 여기며, ‘해’가 솟은 청산은 ‘해’가 뜨기 전의 청산과 달리 모든 존재가 어울려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 ① ‘해야 솟아라.’에서 화자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해’의 등장을 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달밤이 싫어’에서 화자가 ‘달밤’으로 표상되는 어둠에 대한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에서 화자가 ‘해’의 출현으로 밝아진 공간을 맞이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 ④ ‘사슴’, ‘침범’과 ‘놀고’에서 화자가 해가 솟은 후에 청산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와 어울려 화합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옛되고 고운 날을 누리 보리라.’에서 화자가 청산이 밝음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그래 살아 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 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임 준비 되어 있는 끈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끈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4음보의 리듬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대립적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닌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14~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갈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
글 앓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
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
어……,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
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
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
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놓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놓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
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앓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앓아 ㉩앓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해」

1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실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 ② ㉡: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거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자연물을 제시하여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 새로운 상황의 도래에 대한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시어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광복 이후인 1946년에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일제 말기에 창작되었다는 의견과 민족 간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심했던 광복 후에 창작되었다는 의견 중 어느 시기를 맞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작품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창작 시기	시어	상징적 의미
①	일제 말기	어둠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
②	일제 말기	청산	일제 강점하의 핍박에서 벗어나 맞이한 조국의 광복을 상징한다.
③	광복 후	어둠	광복 후 이념 대립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
④	광복 후	청산	민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해소된 이상적인 상태의 조국을 상징한다.
⑤	광복 후	침범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화합의 의지를 잃지 않는 강인한 민족성을 상징한다.

16.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줄글 형태로 되어 운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연 구분은 있으나 행 구분이 없는 산문시이다.
- ③ 강렬한 남성적 어조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생동감이 느껴진다.

17.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애상적인 분위기
- ② 공포스러운 분위기
- ③ 밝고 활기찬 분위기
- ④ 어둡고 몽환적인 분위기
- ⑤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18. 이 시의 화자가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회사를 살려 냈다.
- ② 남한과 북한 선수단의 동시 입장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루어졌다.
- ③ 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했다.
- ④ 전쟁으로 인해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 주었다.
- ⑤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서 수많은 자원 봉사자가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다.

19. ㉠~㉥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0.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체로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 ② 미래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반복을 통해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이 시에서는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이 시의 중심 대상인 '해'를 의인화하여 친근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② 이 시에서는 '이글이글', '훤훤훤' 등의 의태어와 '워어이 워어이'의 의성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얻고 있다.

③ '해'를 향해 '숫아라.'라는 명령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2연과 5연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2. 정답 ⑤

<보기>의 '태양'이 윗글의 '해'에 대응되는 것은 맞지만, 윗글의 '태양'이 더 능동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리라'와 같은 의지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③ <보기>의 '꽃덤불'은 화자가 열망하는 완전한 민족 국가, 화합된 조국을 의미하고, 윗글의 '청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④ <보기>와 달리 윗글에는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와 같이 화합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3. 정답 ④

④는 윗글의 화자와 마찬가지로 화합의 세계에 대한 화자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② 서민들의 애처로운 삶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족과 떨어져 객지에서 방랑하는 화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⑤ 시련 속에서 완성되는 사랑과 삶을 노래하고 있다.

4. 정답 ②

㉠과 ㉡은 해가 솟아오른 세계로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화자는 혼자라도 즐겁고 모두 함께 즐겨도 좋다고 하고 있으므로 ㉠과 ㉡에서 화자는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에서 화자는 고독을 느끼고 있지 않다.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미래에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세계이다.

④ ㉡에는 화자가 다른 생명들과 함께 지내는 연대의 의미가 들어 있으나 ㉠이 혼자라도 좋다는 의미로 소외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과 ㉡에는 모두 밝음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5. 정답 ③

윗글은 '말갱게 씻은 얼굴', '옛된 얼굴' 등 자연물인 '해'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세계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보기>는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등을 통해 자연물인 '호박'에 인격을 부여하여 희생의 숭고함이라는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① 윗글은 명령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보기>는 단정적 어조와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윗글에서 역설적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윗글에서 '해'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정서적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서도 '호박'과 화자가 교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윗글에서 현재 시제는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해'가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6. 정답 ②

'해'는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로 향하게 하는 긍정적 인 매개의 역할을 한다. 시에서 '눈물 같은 골짜기'와 '아무도 없는 뜰'은 해가 없는 부정적인 공간들이다. 그러나 해가 이러한 부정적인 공간들을 매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어둠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어둠'과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인 '해'를 대비하여 '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청산’이 ‘훨훨훨’ 깃을 친다고 표현하여 청산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약자를 의미하는 ‘사슴’, 강자를 의미하는 ‘침범’과 함께 노는 모습을 제시하여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꽃도 새도 짐승도’ 함께 ‘옛되고 고운 날’을 누리자는 것에서 화자가 화합과 공존의 시대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

7. 정답 ①

이 글은 반복과 열거,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격정적인 정서를 부각하거나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등의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적 어조를 전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③, ④, ⑤ 표현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다.

8. 정답 ③

‘현실의 상황’은 음의 텍스트와 관련되므로 ‘해’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청산’에 홀로 존재하는 가정적 상황의 주체는 ‘해’가 아니라 ‘화자’이다.

- ① 해가 명령형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양의 텍스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해의 밝은 모습, 이는 ‘밝음에 대한 찬미’로 볼 수 있으므로 양의 텍스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달밤이 단정적 표현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음의 텍스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달밤을 ‘싫어’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어둠에 대한 혐오’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음의 텍스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9. 정답 ④

④는 ‘침범’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지정하여 대상과의 친밀감 혹은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는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해’가 산을 넘고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을 의미한다.
- ③ 돈호법을 사용하여 ‘해’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옛되고 고운 날’이라는 긍정적이고 추상적인 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누려 보리라.’에서 이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0. 정답 ④

윗글에서 청유형 어미는 확인할 수 없으며, 명령형 어미와 호격 조사, 종결 어미의 활용은 나타난다.

- ① ‘해’라는 어휘와 비슷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음 ‘ㄹ’과 비음 ‘ㄴ, ㅇ, ㄹ’이 활용된 단어들 사용하여 리듬감과 여운을 주고 있다.
- ③ ‘훨훨훨’, ‘워어어 워어어’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해야 솟아라(a) / 해야 솟아라(a) / 말갈게 씻은 얼굴(b) / (고운) 해야 솟아라(a)’에서 aaba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리듬감과 의미 강조의 효과를 가진다.

11. 정답 ⑤

화자는 ‘청산’에서 ‘꽃’, ‘새’, ‘짐승’과 ‘옛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처럼 화자가 ‘해’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므로, 밝음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산이 변모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해야 솟아라.’에서 화자가 어둠을 몰아내고 해가 나타나기를 염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의 등장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달밤이 싫어’에서 ‘싫어’라는 화자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은 ‘달밤’으로 표상되는 어둠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싫다던 화자는 해가 솟은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다’고 한다. 이를 통해 ‘해’의 출현으로 밝아진 공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 ④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침범을 만나면 침범과’ 논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해’가 솟은 청산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와 어울려 화합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정답 ①

윗글에서는 ‘해야 솟아라.’를 반복하여 해로 상징되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둥근 공’, ‘떨어져도’, ‘쓰러지는 법이 없는’을 반복하여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공과 같은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윗글에서는 ‘해’를 의인화하며 ‘눈물 같은 골짜기’와 같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탄력의 나라의 / 왕자처럼’과 같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윗글에서는 ‘훨훨훨 깃을 치는’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청산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떨어져도 튀는’과 같이 ‘공’의 동적 이미지는 나타나 있지만,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윗글에서는 ‘말갈게 씻은 얼굴’, ‘이글이글 옛된 얼굴’과 같이 시각적 심상을 통해 ‘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둥근 공’과 같이 시각적 심상을 통해 ‘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⑤ 윗글의 화자는 ‘해’에는 긍정적, ‘달밤’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여 대상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기> 화자는 ‘공’과 같은 삶의 자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 있지 않다.

13. 정답 ③

윗글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화합과 공존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으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① 이 시는 ‘말갈게 √ 씻은 얼굴 √ 고운 해야 √ 솟아라.’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② 이 시에서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립적으로 배치하여 어둠의 세계는 가고, 밝고 평화로운 세계가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에서 화자는 ‘해가 솟은’ 가정적 상황을 설

정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대화합을 이룬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⑤ ‘해야 솟아라.’, ‘~을 따라,’ 등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4. 정답 ①

‘이글이글 옛된 얼굴’에서 ‘이글이글’은 현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어둠을 불태워 없애 버리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해의 이미지에 투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에서는 절망과 비애의 세계에 대한 강한 증오와 거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청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으로, 화합과 공존의 세계를 상징한다. 이 같은 이상향인 청산이 ‘훨훨훨’ 깃을 친다고 표현하여 역동적인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④ ㉢에서는 ‘꽃, 새, 짐승’ 등의 자연물들이 한자리에 앉아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에서는 ‘-리라’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밝은 미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5. 정답 ⑤

‘침범’은 문맥상 ‘사슴’과 대비되며 ‘강자’를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광복 후를 창작 시기로 볼 경우 이는 혼란스러운 이념적 대립의 상황 속에서 주도적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나 집단을 의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모두 창작 시기에 따른 상징적 의미가 적절하게 연결되었다.

16. 정답 ①

이 시는 줄글 형태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압축하여 말의 가락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산문과 구별되는 산문시이다. 이 시에는 4음보의 급박한 율격이 나타난다.

② 행 구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단호하고 강렬한 남성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와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④ 긍정적 의미의 시어에는 ‘해’, ‘청산’, ‘양지’가 있